

예년의 미래를 내다본다(1)

# 교단과 교회의 브랜드를 왜 높여야 하는가?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다. 가까운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했던 몇 분이 다니다가 자주 만나는 분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절밥이 맛있어서 간다는 분이라고 하기에 교회밥은 더 맛있다고 하면서 전도를 했고, 몇 개월 만에 결실을 맺어 교회에 등록을 했다. 그 후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밥이 맛있다고 자랑을 하며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그렇게 잘 오셨던 분이 갑자기 연락도 받지 않고 사라졌다.

전도했던 분들이 힘들게 찾아서 가보니 다시 절밥을 드시러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물으니, 그분은 머뭇머뭇했고, 그저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했더니 그 대답의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그분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몇 개월 후에도 지역에서 목회하는 사모인 동생에게 이것에 대해 자랑하며 이야기했더니, 그런 교단, 그런 교회를 왜 나가냐고 거기 갈 바엔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 일로 인해 그분은 다시 절로 갔다는 것이다. 우리 교단이나 교회에 관해 그 사모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텐데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큰 아쉬움이 느껴졌다. 개혁 멤버 한 명도 없이 부부끼리 시작하다 보니

전도 외에는 길이 없었다. 아침부터 나가 전도하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보다는 상처되는 말을 듣고 오는 것이 다반사였고,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인정된 모 목사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 교회는 이단이 아닌가요?" 라는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다.

전도를 갔다 오면 날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도를 위해 다른 교인들의 입을 잘 활용하라"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거룩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다른 교인들의 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때 떠오르는 신분이 있었고, 바로 국민일보였다. 주로 믿는 사람들이 구독하는 신문이기에 아는 목사님을 찾아서 초교파 유명한 목사들이 모이는 부흥 선교 단체 광고에 진행 위원으로 제 사인을 한 번만 넣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후 5년 광고가 나가자 필름을 얻어서 성도가 몇 명 안 되는 상황 속에서 4만 장을 인쇄해 매주 신문광고지로 넣고, 거리거리마다 도배를 하기 시작했다. 전단지들을 넣고, 전단지들을 붙인다고 욕도 많이 들었지만, 그 후로도 매주 교회 기도를 소개하는 전단지들을 계속해서 신문에 넣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한 21일 저녁 9시 기도회', '은사 받기 위한 21일 저녁 9시 기도회', '축복받기 위한 21일 저녁 9시 기도회'.

이러한 내용을 넣고, 1, 2년간 열심히 노력하니 이단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교회, 교단의 브랜드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며 눈이 띄어진 사건이었다.

교단의 브랜드는 어떻게 높일 것인가? 내가, 우리 교회 먼저 할 수 있는 것 먼저 해보자 해서, 합동, 통합,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등 타 교단의 성장하는 교회의 목회자를 강사로 불러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다. 교단의 브랜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목사나 직분자들의 입을 통해 타 교인들은 듣고, 또한 잠재적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타 교인들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가 절박 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한다.

타 교단의 목회자를 강사로 불러서 집회할 때 초청하며 친하게 지냈던 1,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 그 교단의 수장들이 되었거나 교단을 움직이는 주역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 교단에 대한 인식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를 넘어,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뜨거운 교단, 열정 있는 교단, 보수적인 교단, 아주 관철은 교단이라는 소리가 들려질 때, 전도의 현장에서 결실을 거두기 위한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교단의 브랜드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이 말로 그 필요성을 정리할 수 있다. 같은 복음인데 대기업 브랜드로 파는 것과 중소기업 브랜드로 파는 차이가 얼마나 크겠나. 우리 교단은 강한 교단이고 얼마든지 더 도와주는 교단이 될 수 있다. 브랜드를 높이기 곧 교회 부흥과 직결됨을 너무 많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분야에서 목회 사역에 지장 주지 않는 한 교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연합 운동, 영성 운동, 기도 운동, 성령 운동, 차별 금지법 반대 운동 등 특색 있는 교단임을 자주, 열정적으로 표출해서 타 교단에도 좋은 이미지로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교회의 새 가족 분포도를 보면 등록 신자의 30% 정도는 원전 초신자이거나 어릴 적에 다녔던 분들이고, 70%는 서울 등지에서 또는 은퇴 후에 이사 오신 이동한 교인들이며 그중에 80% 정도가 장로교인들이다. 그들의 등록 이유를 조사해 보면 유튜브, 인터넷 등에서 찾아보면서, 교회나 담임목사의 사역을 보고 이 교회는 검증된 교회인가 보다, 처음들은 교단이지만, 검증된 교단인가 보다 하고 찾아왔고 등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브랜드를 높이는 이미지 전도와 교계 사역 등은 전도의 토양을 만드는 작업임을 알아야 한다.



이상문 목사  
전 총회장 / 두란노교회

### 목회이야기

##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소망하며

### 나주하늘바람교회 창립 11주년 기념예배

나주하늘바람교회(담임 이곤민 목사)가 지난 11월 9일(주일) 창립 11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24년간의 긴 부교역자 생활을 마감하고 2014년 11월 8일(토)에 창립과 함께 위임예배를 드리고 담임목회로 사역한 지 어느덧 1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2002년에 소망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12년 동안 3명의 교역자가 거쳐 간 교회에 4번째로 부임하여 성도 한 명 없이 임대 건물에서 개척하다시피 교회를 시작하였다. 광주지방교회에서도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3년간 2000만 원의 재정을 지원하였다.

교회를 시작하고 그동안 다녀간 사람들만 수백 명이난다. 노방전도, 축도전도, 학교앞전도, 반찬나눔, 레크리에이션강좌전도, 장애인전도, 교도소사역, 오케스트라전도, 불어행전도,

노가다전도, 총동원초청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리고 1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현재는 107명 20여 명의 성도가 하늘바람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국내선교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7개 교회 100여 명의 성도들이 동참하여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고 물질로 헌신하여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와서 전도에 도움을 주셨다. 너무 감사했다. 사랑의 빛진 자로서 어떻게 빛을 갈음까 고민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들었다. 또한 내가 할 수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들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나는 그저 심부름꾼으로 십여 년의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무리하지 않는 한,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때론 빠른 속도로 때론 천천히 나의 페이스에 맞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며 갈 것이다.

다시 한번 더 개척 당시의 마음과 열정을 떠올리며 하늘바람교회의 27기인 앞으로의 10년을 달려갈 것이다. 다시 1년이 시작되고 2년이 시작되었다. 모르고 시작할 때는 모르는 만큼의 두려움과 모험이 있었고, 알고 시작할 때는 아는 만큼의 여유와 노련함이 장착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이들이나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힘을 내었으면 한다. 나는 이제

개척교회의 옷을 벗고 청년교회로의 도약과 장년교회로 나아간다. 그렇게 앞선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창립주일 강사로는 최용대 목사님을 영접하는 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인인 집이고, 민민이 함께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교회로 세워갈 것이다. 나주하늘바람교회는 나주광명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나주시 남교문로 16-1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김포하늘바람교회(전승학 목사)와 형제교회다.

이곤민 목사/나주하늘바람교회

### 건강 칼럼

## 당뇨병 환자의 시력

중년이 되면 본인은 아니어도, 가족이나 지인 중에 당뇨를 가진 사람이 하나둘 생긴다. 실제로 당뇨는 최근 발병률이 급증하고 발병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30세 이상 인구의 11.3%가 당뇨를 가지고 있다. 연령별로 세분화하면 40대에서는 6.2%, 50대 인구의 17.6%, 60대 인구의 20.6%가 당뇨 환자다.

당뇨는 인슐린 분비·작용에 문제가 생겨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질환으로 여러 합병증을 유발한다. 혈관 손상이 대표적인 합병증이다. 혈관 내 혈당이 높아질 경우 생기는 당산화물이 혈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다. 혈관 벽에 달라붙은 당산화물은 혈관을 통한 혈액 흐름을 손상시켜 뇌, 심장, 콩팥, 눈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히 눈과 콩팥이 문제다. 이곳에는 매우 작고 미세한 혈관들이 분포했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이 가장 먼저 생긴다.

전체 당뇨병 환자의 36.1%가 당뇨망막병증을 갖고 있다. 첫 진단 당시 환자의 1.1%, 유병기간 5년 이하에서는 18.6%, 15년 이상에서는 74.1%의 환자가 당뇨망막병증을 가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당뇨 조절이 잘 된다고 시력이 원래대로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미 손상된 혈관과 망막은 재생이 어렵다. 심지어 이제까지 아무 증상이 없다가 자고 일어나니 한쪽 눈이 먹물을 뿌린 듯 얼룩덜룩 보여 찾아온 분들도 있다.

△당뇨합병증에 의한 출혈이며 △시력 호전은 제한적이며 △반대쪽 눈 시력도 곧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갑작스런 통보에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1, 2년만 병원에 빨리 오셨다면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다.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단계에서는 적절한 관리가 가능하다. 초기에는 눈에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혈당 조절만 철저히 하면 된다. 일정 단계 이상으로 진행이 되면, 망막 레이저술이나 안구 내 주사 치료를 하게 된다. 치료시기를 놓쳐서 유리체강내 출혈이 발생하거나 망막박리가 생기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레이저 치료 등을 받지 않으면 수술해도 예후가 나쁜 경우가 많다. 요컨대 이런 상황이라도 빠른 진단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눈이 정상으로 판정이 나더라도 1년에 한번은 꼭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간단한 사진 촬영으로도 합병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건강과 질병의 유무를 먼저 살펴보고 질병의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조성구 원장  
한시량병원

# '자랑스러운 성결동문' 상 추천 공고

성결대학교 총동문회에서는 성결대학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성결동문' 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자 하오니 다음에 따라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신년하례회 및 동문상 시상

성결대학교 총동문회에서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결 동문과 교단의 여러 목회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신년하례회 및 동문상 시상'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6년 1월 6일(화) 오전 11시

■ 장소: 성결대학교 학생정보관 6층 아립국제회의실

#### 후보자적

1.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한 동문
2. 교계와 사회 예술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동문
3. 모교와 총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한 동문

접수기한 2025. 12. 19.(금) 까지

접수처 이메일 접수 (lee755kr s@naver.com )

문의 이규현 사무총장 (010-54 42-4755)

#### 제출서류

1. 추천서 (추천사유 기재)
2. 후보자의 약력 혹은 이력서(전화번호 기재), 사진 1매



성결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최중화 목사  
SUNGKYUL UNIVERSITY